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년 5월 2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 25.(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5. 25.(금)	담당부서	수출입과
담당과장	이원희 과장(044-203-4040)	담 당 자	홍석민 사무관(044-203-4042)

2018년 1~3월(1분기) 누계 수출 동향 및 특징

- '18. 5. 25(금) 배포 -

○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협회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1~3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것임

○ 다만, 연간 통계 확정시(2019. 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수출 품목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진행중

① 유망 신산업 수출증가율 35%로 총 수출증가율(10.1%) 3배 이상 상회
②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일반기계 사상 최대 분기 수출(128억불) 달성
③ 스마트·IoT기기 확산으로 MCP(고부가 반도체 품목) 1분기 수출 85% 증가(75억불)
④ 13대 주력품목 외 정밀화학원료(고부가 소재산업 원료) 1분기 수출 37% 상승(20억불)
⑤ 유망 신산업 중 전기차는 1분기 수출 178%(4분기 연속 세자릿수) 상승(3억불)

1. '18년 1분기(1~3월) 수출 주요 특징 및 평가

□ **유망 신산업**의 **수출**('18.1분기 +35.0%, 204.2억불)과 **수출비중**('17년 12.8 → '18.1분기 14.0)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품목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진전**

* 유망 신산업 수출액 추이(억불) : ('16) 554.2 → ('17) 736.0 → ('18.1Q) 204.2
* 유망 신산업 수출비중 추이(%) : ('16) 11.2 → ('17) 12.8 → ('18.1Q) 14.0

< 「유망 신산업」 개요 >

▪ 「신산업 민관협의회」 선정('16.12월) 12대 신산업 중 HS코드 신설·지정을 통해 수출 실적 집계 가능한 9개 산업에서 매월 1일 수출입 동향에서 발표하는 '유망 소비재' 제외

▪ ①전기차, ②로봇, ③바이오헬스, ④항공우주, ⑤에너지신산업(태양광·전기차/ESS용 축전지·스마트미터), ⑥첨단 신소재, ⑦차세대 디스플레이, ⑧차세대 반도체

※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신산업 특성상 현재 HS코드가 미부여되었거나, 범용성 제품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산업 실태조사상의 수출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유망 신산업 수출의 증가율**은 총 수출 증가율('18.1분기 +10.1%)을 **3배 이상 상회**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며 **수출비중**도 **점진적 확대 추세**

* 유망 신산업 수출증감률(%) : ('17.1Q) 20.6 → (2Q) 19.4 → (3Q) 29.2 → (4Q) 37.8 → ('18.1Q) 35.0
* 유망 신산업 수출비중(%) : ('17.1Q) 11.5 → (2Q) 11.1 → (3Q) 13.2 → (4Q) 15.4 → ('18.1Q) 14.0

- 품목별로는 **총 8개 품목** 중 **전기차·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품목 고부가가치화 확대**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전기차) 177.6 (바이오헬스) 30.5, (에너지신산업) 29.1, (차세대DP) 3.2

- 지역별로는 **10대 주요지역** 중 **중동**을 **제외한 9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여 **지역별 편중 없이 성장**

* 주요지역 수출증감률(%) : (아세안) 59.4, (EU) 45.7, (인도) 58.6, (중국) 19.7

< '18년 1분기 「유망 신산업」 수출 실적 (통관기준)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7년					'18년
	1Q	2Q	3Q	4Q	연간	1Q
수출액	151.3	163.4	199.9	221.4	736.0	204.2
증감률	(20.6)	(19.4)	(29.2)	(37.8)	(27.4)	(35.0)
비중	11.5	11.1	13.2	15.4	12.8	14.0

* '17년 증감률 계산시 태양광 수출실적은 미포함('17년 태양광 코드 전면 신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아세안·중남미·중동·인도·CIS)에 대한 **수출이 확대** 추세 ('18.1분기 +6.7%)로 **시장 다변화도 개선**(수출비중은 '17년, '18.1분기 30% 유지)

*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억불) : ('16) 144.7 → ('17) 172.0 → ('18.1Q) 43.6

○ 특히, 유망 신산업 수출의 경우, **아세안·인도·CIS** 등 **남북 교역축 신흥시장의 주요지역 수출이 크게 성장**(아세안 +59.4%, 인도 +58.6)하고 **수출비중**도 **증가**('17년 28.4 → '18.1분기 29.8) 하는 등 **수출 시장 다변화 뚜렷**

* 유망 신산업 주요지역 수출증감률(%) : (아세안) 59.4, (EU) 45.7, (인도) 58.6, (CIS) 39.8
* 유망 신산업 남북교역축 신흥시장 수출비중(%) : ('17) 28.4 → ('18.1Q) 29.8

□ '18.1분기 중 **상세 품목별**(MTI 3단위 기준)로는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의약품, 건설광산기계**가 **수출증가율이 큰 상위 5대 품목**으로 집계 (5억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수출증가율 상위 5대 품목)

* 세부품목 수출실적('18.1Q, 억불·전년비%) : (반도체) 294.9(45.9), (컴퓨터) 28.0(43.4), (정밀화학원료) 19.7(37.4), (농약·의약품) 17.9(32.4), (건설광산기계) 9.2(32.8)

○ **주력 품목별**로 **고부가가치 세부 품목**(전기차·OLED·MCP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로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화**도 **확대**

* 수출비중 변화('17 → '18.1Q, %) : (전기차/자동차) 2.2 → 3.0, (OLED/디스플레이) 33.7 → 35.4, (MCP/반도체) 23.5 → 25.3

- 특히, **전기차/자동차 수출비중**은 **6년 연속, OLED/DP는 4년 연속 증가중**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2:12

2. 주요 증가 품목 심층 분석

□ (**일반기계**) 지난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사상 최대 분기 수출실적**(128.5억불, +9.3% 증가) **달성** 및 **수출 비중 상승**(2위 품목) 등 반도체를 잇는 **수출 효자 품목으로 성장**

○ (**성장 과정**) '70~'80년대 산업 인프라 미성숙, 기업 영세성 등으로 인해 수입 의존도가 컸으나, 국산화율 제고, 품질 개선 및 기술 향상 등 노력을 통해 **'03년 수출 최초 100억불 돌파**

- **'06년 10위 수출국가로 성장**(현재 8위) 후, **'07년 첫 무역흑자**를 **기록, '17년 역대 최대 연간 수출실적**(486.1억불) **달성** 등 **꾸준한 성장 추세**

* 세계 일반기계 수출순위 : ('90) 19위 → ('00) 15위 → ('06) 10위 → ('08) 9위 → ('16) 8위

○ (**산업 특성**) ①**선진국형 기반산업**(선·후진국간 기술격차 大, 진입장벽 高), ②**산업 경쟁력의 원천**(다양한 산업군에 핵심 생산설비 공급 등), ③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산업**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전체 제조업) 6.8, (일반기계) 9.7

○ (**최근 수출 증가요인**) **中·美 등 주요국의 제조업 경기 호조, 건설 경기 회복** 등에 따른 **투자 확대**로 **수출 증가세 지속**('16.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

* 일반기계 분기별 수출증가율(%) : ('16.4Q) 6.0 → ('17.1Q) 10.3 → ('17.2Q) 10.3 → ('17.3Q) 11.9 → ('17.4Q) 8.1 → ('18.1Q) 9.3

* 글로벌 제조업 PMI(JP Morgan, '18.4) : ('17.12) 54.5 → ('18.1) 54.4 → (2) 54.1 → (3) 53.4

○ (**주요품목**) **건설기계**(굴삭기·불도저 등, '18.1분기 일반기계 내 수출비중 14.0%), **금형**(6.7%), **공작기계**(NC선반·머시닝센터 등, 5.5%) 등

* 세부품목 수출증감률('18.1Q, %) : (건설기계) 32.4, (금형) 10.5, (공작기계) 10.2

○ (**주요 수출지역**) 중국(수출비중 25.1%), 미국(15.6%), EU(13.6%) 등

* 지역별 수출증감률('18.1Q, %) : (중국) 17.2, (미국) 15.1, (EU) 21.0

□ (**복합구조칩직접회로 : MCP**) 반도체 중 **주요 고부가가치 품목**인 **MCP**는 **'18.1분기 수출이 85.0% 증가**(74.7억불)하여,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25%를 초과**('18.1분기, 25.3%로 2위 세부 품목)

* 세부품목별 수출실적('18.1Q, 억불) : (디램) 79.1, (MCP) 74.7, (시스템반도체) 65.1

* MCP(Multi Chip Package) : 2개 이상의 반도체 칩을 적층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만든 반도체칩

○ (**성장 과정**) 과거 반도체 산업은 PC 산업 성장에 연계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전자기기**(스마트·IoT기기 등) **등장**, 자동차·바이오·가전 등 이종 산업내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수출 급성장**

- **'15년 최초로 100억불을 돌파**(117.2억불)하는 등 **'13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 중**

* MCP 수출실적(억불·전년비%) : ('13) 80.7(17.7) → ('14) 98.7(22.4) → ('15) 117.2(18.7) → ('16) 156.0(33.1) → ('17) 230.1(47.5) → ('18.1Q) 74.7(85.0)

○ (**품목 특성**) 칩의 **사용 공간 축소**(초소형화)를 통해 **공간 활용도** 및 **처리 속도** 제고(첨단 집접화 및 적층 기술이 핵심)

- 휴대폰·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의 다기능·소형화 추세에 따라 **시장 급성장**

* 주요 수요처 : MCP는 좁은 공간에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밴드·와치 등) 및 IoT기기 등에 많이 활용

○ (**최근 수출 증가요인**) 고성능·고용량 **메모리반도체 수요 확대, MCP의 용량** 및 **적용범위 증가, 가격 안정세 등**에 따라 **수출 호조**

* MCP 스마트폰 낸드 탑재량(GB) : ('17년) 16～64 → ('18년) 64～128

* MCP 스마트폰 낸드 탑재량(GB) : ('17년) 2～3 → ('18년) 4～6

○ (**주요 수출지역**) **중국**(수출비중 28.9%), **아세안**(12.7%), **베트남**(12.0%),

* 지역별 수출증가율('18.1Q, %) : (중국) 105.4, (아세안) 179.5, (베트남) 170.5

□ (**정밀화학원료**) 정밀화학원료는 **13대 주력품목**을 **제외**한 **기타 품목**의 주요품목으로, **금년도 1분기에 37.4% 증가**(3년연속 증가세)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짐**('18.1분기 19.7억불, +37.4% 증가)

※ 이하 통계·분석은 **정밀화학산업(정밀화학원료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선박·전자 등 전방산업의 원부자재로 쓰이는 염·안료, 의약품 등 생산) 기준**

* 정밀화학 주요품목 : 염·안료, 농약, 도료, 잉크, 계면활성제, 화장품, 의약, 접착제 등

○ (**성장 과정**) 과거 **전후방 산업 연계 미흡**, 경쟁국(美, EU, 日 등) 대비 **기술 부족** 등으로, **범용제품 위주 수출로 수출경쟁력이 낮았**으나,

- 최근 **R&D 및 창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매년 수출규모 증가('14년 최초 100→'17년 151억불), **생산대비 수출비율 향상** 및 **세계시장 점유율 지속적 확대** 추세

* 연도별 수출실적(억불) : ('00) 17.9 → ('05) 32.1 → ('10) 67.3 → ('15) 113.9 → ('17) 150.8

* 생산 대비 수출 비율(%) : ('00) 10.2 → ('05) 15.8 → ('10) 19.9 → ('15) 26.0

* 세계 시장 점유율(%) : ('13) 1.0 → ('14) 1.1 → ('15) 1.3 → ('16) 1.5

○ (**산업 특성**) 자동차·선박·전자·섬유 등 **전방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①**가공형·중간형이자** ②**지식기반 소재산업**

○ (**최근 수출 증가요인**) 선진국 약가 억제 정책에 따른 **의약품 원료 수출 증가** 및 K-뷰티 열풍으로 인한 **화장품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

try and try and tr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2:12

○ **(주요품목) 화장품향료**('18.1분기 정밀화학 내 수출비중 34.7%), **의약**(18.2%), **염안료**(7.3%) 등

* 세부품목 수출증감률('18.1Q, %) : (화장품향료) 26.0, (의약) 47.0, (염안료) △3.5

○ **(주요 수출지역) 중국**(수출비중 35.1%), **일본**(14.3%), **아세안**(12.4%)

* 주요 수출지역 비중·증감률은 정밀화학이 아닌 정밀화학원료 1분기 수출 통계 기준
* 지역별 수출증가율('18.1Q, %) : (중국) 38.2, (일본) 68.7, (아세안) 33.8

4 **(전기차)** 유망 신산업 주요품목인 전기차는 신산업 품목 중 **유일하게 세자릿수 증가**('18.1분기, 3억불, +177.6% 증가) 하는 등 **급성장세**(4분기 연속 세자릿수 증가)

○ **(산업 동향 및 전망)** 4차산업 혁명의 기술 확산과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

- 우리나라는 **우수한 완성차 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 확대 기대**

* 세계 자동차 시장 전망(LMC) : ('16) 9.4천만대 → ('30) 1.2억대
* 전기차 신차시장 비중 전망(SNe Research) : ('17) 1.1% → ('30) 30.0%

○ **(최근 수출 증가요인)** PHEV(전기-가솔린 하이브리드) **신차 출시** 이후 **인센티브·인프라** 등 **보급여건**이 좋은 **EU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 세부품목별 수출실적('18.1~3월, 억불·%) : (PHEV) 1.7(673.9), (EV) 1.3(50.8)

○ **(주요품목) PHEV***(전기-가솔린 하이브리드, '18.1분기 전기차 내 수출비중 56.7%), **EV**(순수 배터리 전기차, 43.3%)

* (PHEV)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 (EV) Electric Vehicle
* 세부품목 수출 증감률(%) : (PHEV) 673.9%, (EV) 50.8%

○ **(주요 수출지역) EU**(수출비중 70.3%), **미국**(9.6%), **중남미**(0.9%) 등

* 지역별 수출증가율('18.1Q, %) : (EU) 401.3, (미국) △22.1, (중남미) 390.0%

3. 향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김선민 무역정책관**은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 "향후에도 소재, 유망 신산업 등 **수출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수출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요 품목·지역별 특징 분석 등 세부 내용은 별첨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홍석민 사무관(☎ 044-203-40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18년 1분기(1~3월) 수출 동향 세부 내용**

< 총 괄 >

□ **(전체) '18.1분기(1~3월) 총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1% 증가 (1,453.8억불)**

○ '17.3분기 이후 2분기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하고, '16.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분기별 수출 증가세 지속**

* 수출증감률(%) : ('16.4Q)1.8 → ('17.1Q)14.6 → (2Q)16.7 → (3Q) 24.0 → (4Q) 8.4 → ('18.1Q)10.1

< '18년 1분기 수출 실적 (통관기준) **>**

(단위 : 억 달러, %)

구 분	'17년					'18년
	1Q	2Q	3Q	4Q	연간	1Q
수출액	1,320.6	1,470.4	1,510.5	1,435.4	5,736.9	1,453.8
증감률	(14.6)	(16.7)	(24.0)	(8.4)	(15.8)	(10.1)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제품·컴퓨터**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 견인**

* 주요품목 수출증감률(%) : (반도체) 45.9, (일반기계) 9.3, (석유제품) 15.1, (컴퓨터) 43.4

○ 지역별로는 **10대 주요지역 중 중국·EU·베트남·일본** 등 **7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여, **지역별로 고른 수출 성장 시현**

* 주요지역 수출증감률(%) : (베트남) 17.6, (일본) 16.5, (EU) 16.1, (중국) 14.8

< 품목별 분석 >

1 **(주력품목)**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컴퓨터** 등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3개**(반도체·석유제품·컴퓨터)는 **두 자릿수 증가**

* 수출액/증감률('18.1Q, 억불·%) : (반도체) 294.9(45.9), (일반기계) 128.5(9.3), (석유화학) 123.6(8.1), (석유제품) 100.1(15.1), (자동차) 98.0(△4.4), (철강) 81.4(3.4), (선박) 69.0(△1.1), (디스플레이) 56.2(△15.5), (차부품) 54.6(△11.9), (무선통신기기) 45.9(△19.1), (섬유) 34.0(4.8), (컴퓨터) 28.0(43.4), (가전) 18.8(△17.5)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2:12

○ ①**반도체**는 **역대 최대 분기 수출실적**(294.9억불)을 기록(10대 주요지역 모두 증가) 하는 등 **6분기 연속 견조한 수출 성장세**, ②**일반기계**도 **사상 최대 분기 수출실적**(128.5억불) **달성** 및 **수출 비중 상승**(2위 품목)

* 반도체 분기별 수출액(억불) : ('16.2Q) 147.2 → (3Q) 162.9 → (4Q) 172.5 → ('17.1Q) 202.1 → (2Q) 226.7 → (3Q) 263.4 → (4Q) 287.2 → ('18.1Q) 294.9
* 일반기계 수출비중(%) : ('17) 8.5 → ('18.1Q) 8.8

○ ①**석유화학**은 **'16.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유지**('18.1분기 역대 3위 실적) 하였고, ②**석유제품**도 '16.4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 석유화학 역대 분기별 수출액(억불) : (1위) 125.1('14.3Q), (2위) 124.2('13.1Q), (3위) 123.6('18.1Q)
* 석유제품 분기별 수출증가율(%) : ('17.1Q) 66.6 → ('17.2Q) 11.9 → ('17.3Q) 29.7 → ('17.4Q) 29.8 → ('18.1Q) 15.1

□ **(유망 신산업) 전기차·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차세대디스플레이** 등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였고, **5개 품목**(전기차·바이오헬스·에너지신산업·첨단신소재·차세대반도체)은 **두 자릿수 이상 증가**

* 수출액/증감률('18.1Q, 억불·%) : (차세대반도체) 135.4(48.7), (차세대DP) 19.9(3.2), (에너지신산업) 18.2(29.1), (바이오헬스) 11.1(30.5), 첨단신소재) 8.0(21.8), (항공드론) 7.0(△23.0), (전기차) 3.0(177.6), (로봇) 1.7(6.3)

○ ①**전기차**는 유망 신산업 품목 중 **유일하게 세자릿 수 증가**(+177.6%)로 **가장 급성장하는 품목**(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증가)이며 현 추세 유지시 **올해 최초 10억불 수출 달성 가능**('17년 9억불), ②**바이오헬스**는 **1분기에 30.5% 증가**하여 지난해 이어 **올해도 40억불 이상 수출 달성 전망**

* 전기차 분기별 수출증가율(%) : ('17.2Q) 187.8→ (3Q) 261.1 → (4Q) 382.1 → ('18.1Q) 177.6
* 바이오헬스 수출 추이(억불) : ('17) 45.3 → ('18.1Q) 11.1

○ ①에너지신산업도 태양광·축전지 등 **세부품목 선전**('18.1분기 수출 증가율 : 태양광 +31.7%, 축전지 +25.6%)에 힘입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세이며, ②**차세대디스플레이**(OLED)의 **수출 증가** 및 **디스플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로 **고부가가치화 확대**

* 에너지신산업 수출비중(%) : ('15) 0.5 → ('16) 0.6 →('17) 1.1 → ('18.1Q) 1.2
* 차세대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수출비중(%) : ('17) 33.7 → ('18.1Q) 35.4

< 지역별 분석 >

□ **(전체)** 10대 주요지역 중 **중국·아세안·베트남·EU** 등 **7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 하였고, **6개 지역**(중국·아세안·CIS·베트남·EU·일본)은 **두 자릿수 증가**

* 수출액/증감률('18.1Q, 억불·%) : (중국) 384.9(14.8), (아세안) 245.3(12.9), (미국) 159.9(△2.8), (베트남) 121.1(17.6), (EU) 142.5(16.1), (일본) 76.6(16.5), (중남미) 72.6(5.6), (중동) 57.9(△10.8), (인도) 36.0(△0.2), (CIS) 24.1(11.1)

○ ①**아세안**은 **역대 2위 분기 수출실적**(245.3억불)을 **달성**하였고 **수출비중이 지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대 수출비중**(16.9%) **기록중**, ②**EU**는 **지난분기 소폭 감소**에서 **증가세로 전환**, **'11년 이후 최대 수출비중**(9.8%) **유지중**

* 아세안 수출비중 추이(%) : ('15) 14.2 → ('16) 15.0 → ('17) 16.6 → ('18.1Q) 16.9
* EU 수출비중 추이(%) : ('12) 9.0 → ('14) 9.0 → ('16) 9.4 → ('17) 9.4 → ('18.1Q) 9.8

○ ①**일본**은 '14.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별 수출 70억불에 재진입**(76.6억불)하였고, ②**CIS**는 13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일반기계·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 **호조**로 **품목별로 균형잡힌 수출 증가 기록**

* 일본 분기별 수출실적 추이(억불) : ('14.4Q) 77.8 → ('16.4Q) 66.0 → ('17.1Q) 65.7 → ('17.2Q) 66.4 → ('17.3Q) 67.9 → ('17.4Q) 68.2 → ('18.1Q) 76.6
* CIS 주요품목별 수출증가율('18.1Q, %) : (일반기계) 33.7, (석유화학) 43.9, (자동차) 47.9, (철강) 48.5, (디스플레이) 57.9

□ **(유망 신산업)** 10대 주요지역 중 **중동 제외 9개 지역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8개 지역**(중국·일본·인도·중남미·아세안·CIS·EU·베트남) **두 자릿수 증가**

* 수출액/증감률('18.1Q, 억불·%) : (중국) 51.8(19.7), (아세안) 51.8(59.4), (베트남) 37.6(90.0), (EU) 16.5(45.7), (미국) 9.4(5.0), (일본) 4.6(12.6), (중남미) 4.5(13.5), (인도) 2.8(58.6), (중동) 1.4(△60.5), (CIS) 0.5(39.8)

○ ①**베트남 수출이 가장 크게 증가**(+90.0%)하는 등 **아세안 수출 두 자릿수 지속 증가** 및 **수출 비중**('17년 23.6→'18.1분기 25.4%) **확대**, ②**인도·CIS**는 '17년에 이어 '18.1분기 **연속 두자릿 수 증가** 및 **수출 증가율 상승세**

* 주요 국가별 수출증가율('17→'18.1Q, %) : (아세안) 48.8 → 59.4, (인도) 28.7 → 58.6, (CIS) 27.5→39.8, (베트남) 87.8→90.0

○ **EU·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하는 등 **호조세 지속**

* 주요 국가별 수출증가율('17→'18.1Q, %) : (EU) 42.0 → 45.7, (일본) 11.9→12.6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8-05-24 13:12:12